

대국민 보고

여러분, 이렇게 이곳까지 저를 마중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 시간에 도착 못해서 아마 저녁도 못 잡으셨을 것입니다.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처지라서 과연 가야 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마만큼 임기 안에 마무리를 하고 또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인지 무척 고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지금의 이 좋은 기회에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또 시간적으로 너무 뒤로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 반면 더 많은 분들은 갔다 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라고 주문을 내놓으시는데, 정말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 주문을 어떻게 다 소화할까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듬고 간추려서 최대한 다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한 보따리가 돼

서 가는 걸음이 무거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성사시키고 올 것인가 걱정이 돼서 정말 발걸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오는 보따리가 좀 적더라도 만남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해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한 자락 깔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 갔던 보따리를,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갔던 일거리를 확 풀어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보자기로 다시 성과를 싸는데, 가져갔던 보자기가 적어서 짐을 다 싸기가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은 제안들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거까지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했더라면, 또 몇 사람 참모만 가지고 이 일을 했더라면 결코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언을 해 주신 많은 분들은 물론이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에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고 돌아올 때도 조용히 들어오곤 했습니다. 연설하고 박수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성대한 환영식과 열렬한 박수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양에서 북녘 동포들이 저에게 보여 주신 뜨거운 환영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쪽 긴 거리를 가며,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정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녘 사람들과 북녘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꼭 우리가 해야겠구나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첫 회담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 느낌이 ‘아, 양측 간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꺼워서 무엇 한 가지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지 눈앞이 좀 캄캄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기대를 가져 봤습니다. 같이 갔던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북측과 많은 회담을 했던 분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그분들이 항상 본시 군기를 그렇게 잡으니까 처음에 군기 잡은 거지, 말하자면 기세 싸움 한 것이지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내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번 만나 보자, 그때까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해 보라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오후 가니까 좀 잘 풀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이다.

사실 제가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북핵문제입니다. 남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 이 합의가 있고,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있고 지금 잘 풀려 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북핵문제 해결하고 와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저더러 따로 어디서 또 타작마당 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저로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얘기를 꺼내서 또 확인하자는 것이 회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6자회담의 장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남북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자,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문제에 대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 재확인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고, 이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인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6자회담에서 북측이 민감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또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10월 3일 공동성명의 합의 경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6자회담의 진행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잘 풀려 갈 것으로, 따라서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북핵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 간의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고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 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선언문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당사국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 문제도 북측으로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확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 그리고 북·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은 합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중요성을 여러 차례 매우 강조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매우 경청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 되면, 이제 우리는 분단 반세기 만에 냉전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서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을 설치하고, 해주공단을 개발해서 개성공단·인천항과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해 나가는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명쾌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남북 공동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해안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중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저는 경제협력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실질 회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등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협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 하면 얼른 '일방적 지원'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데, 회담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됐을 때에는 북측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도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점을 매우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지역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남북 경협이 잘되지 않고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많다

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장애 요인을 해소하면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이 많은 장애 요인들을 건건이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시간과 절차가 많이 걸리고 해결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개발 방식을 통해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남북 경협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시장경제 원칙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북 당국이 합의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군사적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 북·미, 북·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국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번영의 구상을 미리 준비한 바에 따라서 상세하게 밝히고, 경제협력을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인식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개발은 평화 정착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남북의 어민과 우리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평화 번영의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

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주 지역의 특별지대 설정은 개성과의 관계, 인천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남북 간에 논의되어 오던 각종 경협사업들이 정상 간 합의로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어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 가기 위해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간 부총리급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문제는 제기되지만 해결한다고 하면서 계속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제안과 합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합의가 남북 경협 수준을 한 차원 높여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그리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평화의 문제, 그저 일반적인 경제 번영의 문제를 넘어 한국경제, 특히 구조조정 문제에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북방 경제'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너무 까마득해서 '혹시 허황된 주장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좀 속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북방 경제'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이름이 별로 좋진 않아서 앞으로 좋은 이름으로 붙여야겠습니다만, 한국경제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북 경제의 '상생의 경제' 실현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분야는 양측이 서로 제기할 사항이 많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납북자·국군 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대화의 기회를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서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 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국가 정상 간에 그런 선례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서 현안 문제들을 협의한다는 정도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자주 좀 만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회담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돼 오던 남북 대화의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에 서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요청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우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하고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좀더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15공동선언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이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동서독과 같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상호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회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주'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공조' '민족공조'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만, 저는 한국정부가 비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하고, 또 자주성의 수준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와 협력도 중요하

고, 필요할 때 항의도 하고 또 항의를 수용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배제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함께 발전해 나가자면 결국 우리가 고립을 벗고 세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뺀어 나가면서, 자주에는 많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점차 높여 나가는 것으로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깊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동행한 특별 수행원들이 지금 이 단상에 계십니다만 7개 분야별로 북측과 간담회를 열고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소통을 더욱 넓히는 데 아주 유익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새롭게 발전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북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측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11월 중에 예정된 총리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행 과정은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사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좋은 것이면 찬성해서 불리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고, 합의가 나쁜 것이면 반대해서 불리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합의 자체

가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대한 태도나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리, 불리를 가르는 것입니다. 이 합의가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느 정부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 더 나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더욱 잘 풀어 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시다만, 어쩐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알맹이는 선언문에 있는데, 선언문 내용 중 한두 가지 외에는 오늘 저의 설명에 들어 있지 않고 배경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 보고가 어떻게 보면 조금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허전하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묵직한 보따리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선공업지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우리 남측 경제에 있어서, 또 북측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아주 유익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좋은 계기일 뿐만 아니라 조선공업이 가지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생각하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구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북측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

는 점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특구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공세적으로 자꾸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총리회담이나 부총리급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좀더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두산 얘기도 있는데, 선언문을 다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이미 선언문을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배경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